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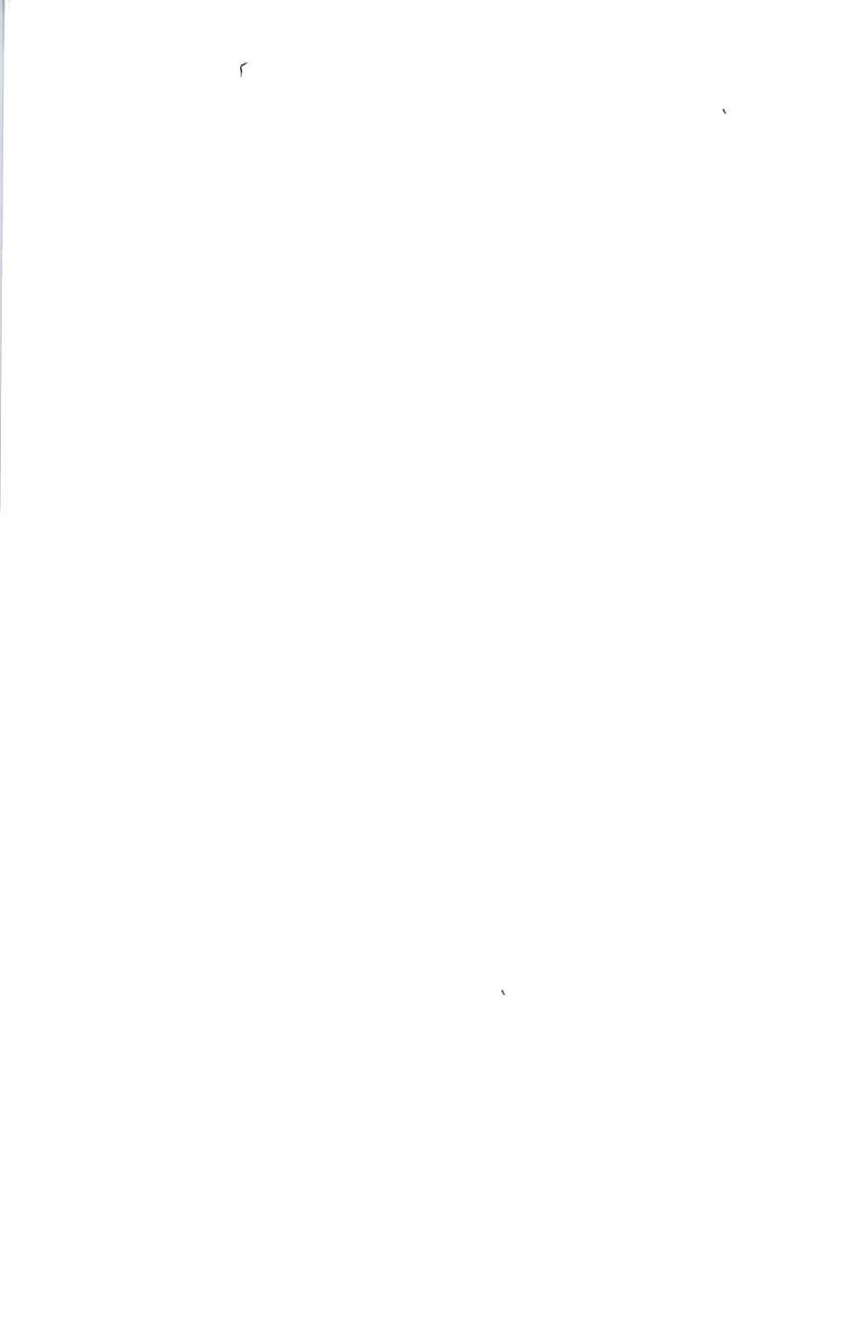
2008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사무엘상 · 사무엘하
 히브리서 · 야고보서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1

2008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사무엘상 · 사무엘하
 히브리서 · 야고보서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 도 제 목

- 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 16:18)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충현의 성도들이 담대한 믿음(창15:1)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 ② 25개 교구와 23개 교회학교를 통하여 충현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 ③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십자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 ④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훈련이 성령님의 뜻대로 진행되며,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⑤ 1·1·1 전도와 매월 둘째 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있는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교회 주변의 모든 영혼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 ⑥ 모든 위원회에 속한 각 부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하나되며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해서 금요찬양 집회가 보혈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 ⑦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 되게 하소서.
- ⑧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동산·복지)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하나되며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남골시설건립과 공사 중인 수양관, 본당 외벽석재 보수가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온 땅에 충만한 십자가의 은총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라”(마 16:18)는
주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2008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창 15:1)
주님은 한 해의 첫 발을 내딛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마 26:26~29)를 통해 흐르는 은총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복음의 능력(고전 15:1~11)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실천하게 합니다.

변치않으시는 하나님(말 3:6)께서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사 6:1~8)하는
참 신자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실천입니다.
십자가의 은총으로 온 땅 가득할
2008년을 소망하십시오.

2008년 1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매일 성경묵상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 5:39)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울의 영적 상태는 매우 비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난 것뿐 아니라 악령이 들어와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처음에는 사울도 다윗을 사랑하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백성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하자 다윗을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에 대하여 아무런 적의도 없고 대항도 하지 않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수급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난창을 던진 것도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10절) 결국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행동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블레셋과의 싸움터에서 죽게 하려는 등 악한 계략과 행동이 아홉 차례나 더 있었습니다. 참으로 사울의 포악하고도 기괴한 행동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사울은 자기 딸을 다윗의 아내로 주어 다윗을 사위로 맞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사울의 행동은 참으로 엉뚱하고 포악하였으며 성경은 사울의 그런 행동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 있게 내리매”(삼상 18:10) 사울의 포악한 행동에는 악신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분쟁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함으로 생겨나는 시기와 질투입니다. 지극히 작은 시기와 질투라도 마귀는 이것을 이용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믿음의 실전이 있는 영원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삼상 19:6)

기도 제목 ① 오늘 하루도 나의 삶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② 2008년 한 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었던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집요한 추격으로 위기에 처한 다윗은 요나단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은 그를 위해 아버지 사울에게 간청해 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1~11절)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은 영원히 변치 않는 우정을 지킬 것을 하나님 앞에 언약 하였습니다.(12~23절) 월삭 때에 사울과 같이 식사를 하던 요나단은 다윗을 위하여 아버지에게 간청하였으나 오히려 사울에 의해 죽음을 당할 뻔하였고 이로 인하여 심히 슬퍼하였습니다.(24~34절) 다음 날 요나단은 다윗을 몰래 만나 다윗에 대한 사울의 증오심을 전하고, 다윗에게 피신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둘은 슬픔 속에 작별을 고했습니다.(35~42절)

둘 사이의 우정이 이처럼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그 만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근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가의 후계자이면서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랑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악 된 본성은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따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의 결단이 있을 때에만 성도간의 교제와 형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누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삼상 20:17)

기도 제목 ① 죄악 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 시에 십자가 복음의 비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선택받은 다윗은 정식으로 왕위에 오르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울의 미움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알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이스라엘을 떠나 도망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 뚝으로 도망한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러 자신의 일행을 위해 먹을 것을 주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아히멜렉은 하나님께 드린 진설병을 주어 허기를 면케 하였습니다.(1~6절) 그 때에 다윗은 아히멜렉에게서 자신이 과거에 죽였던 골리앗의 검을 얻었습니다.(7~9절) 그리고 마침 그곳에 사울의 신하가 오자 다윗은 멀리 가드 땅으로 도망하였습니다. 거기에서 다윗은 일부러 미치광이처럼 행동하여 가드 왕 아기스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10~15절) 이처럼 다윗이 겪은 수많은 고통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연단이요 훈련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이스라엘의 원수인 가드 땅에까지 도망하였지만 거기서도 안식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품 밖에 없음을 교훈해 줍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고난이 닥칠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고난 속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믿으십니까? 이 영원한 사랑을 믿을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삼상 21:10)

기도 제목 ① 날마다 하나님의 품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②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순종하는 신실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사울의 질투로 인하여 다윗에게 끝없는 고난이 이어졌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고난이 다윗뿐만이 아니라 그를 따르고 도와주던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미쳤습니다. 가드에서 빠져 나온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신하자 사백 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피신하였다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1~5절)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다윗의 행적을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은 신하들을 크게 진책하였습니다.(6~10절) 그리고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제사장들을 죽이고 제사장들의 성읍 곱에 있는 남녀와 아이들까지 모두 죽였습니다. 이 가운데서 겨우 살아난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이 모든 사실을 고하였습니다.(11~23절)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고난의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지도자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먼저 그를 겸손케 만드시며,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은 그의 방랑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확신했고,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였으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5절)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어긋날 뿐 아니라 손해와 고난의 길임이 분명한 때에라도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물에 이르니라”(심상 22:5)

기도 제목 ① 핍박과 고난의 길이 분명한 때에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블레셋의 침략을 받은 그일라를 구한 다윗이(1~5절) 그일라 사람들의 배반으로 사울의 추격을 받게 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 십 황무지로 도망한 다윗은 다시 십 사람의 밀고로 쫓기게 됩니다. 자신이 구해 준 그일라 사람들의 배반으로 쫓기게 된 다윗은 십 사람에게서도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시편 54편에는 사람으로부터는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던 다윗의 믿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은 다시 십 황무지에서 마온 황무지로 피하지만 사울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바로 그때 블레셋의 급작스러운 공격으로 다윗은 다시 사울의 손에서 놓여집니다. 다윗은 계속되는 곤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인도로 그를 지켜 주셨습니다.(6~29절) 다윗은 그곳을 '셀라하마느곳' (피난처)이라고 칭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에게 닥친 환난은 참으로 위급하고 절망스러워 한 순간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다윗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만이 인생의 참된 도움이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며, 하나님의 현존 하심과 십자가 복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물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삼상 23:16)

기도 제목 ①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②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 확신 가운데 복음을 증거 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다윗을 눈앞에 두고도 블레셋의 침략 때문에 돌아서야 했던 사울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난 후 다시 엔게디 황무지에 있는 다윗을 추격합니다. 엔게디 황무지에서는 지금까지 쫓기던 다윗이 오히려 사울의 목숨을 해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자르고 해치지는 않았습니다.(1~7절) 이로써 다윗은 자신의 결백을 증거해 보이고(8~15절) 감동을 받은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게 됩니다.(16~22절) 그러나 사울의 이러한 태도는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반응이었을 뿐 진정으로 회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이미 수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으며 이 사건으로 명백한 증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할 뿐만 아니라 그 잘못으로 인해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결과에 대한 대가도 피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울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얼마 후 다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한편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해칠 수 있는 상황에서, 특히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말하는 상황에서도 사울의 잘못 자락을 뵈는 것조차 불편해했습니다.(5절) 다윗의 중심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 세워진 왕이라는 이유로 사울의 생명을 해하지 않았던 다윗의 행동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삼상 24:12)

기도 제목 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② 그리스도의 삶과 피를 온전히 기억하는 가운데 보혈의 은총으로 기득한 성찬식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다윗을 추적하던 사울에게 일어난 엔게디 동굴 사건(24장)과 하갈라 기슭 사건(26장)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을 소개합니다. 나발의 거만한 태도에 분노한 다윗이 나발과 그에게 속한 자를 모두 죽이려 하였고(9~13절),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황급히 예물을 가지고 다윗에게 나아가 남편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장면(14~31절), 이에 대한 다윗의 반응(32~35절)과 나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다윗의 근황(36~44절)입니다.

특히 아비가일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합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26절) 아비가일의 이 말은 단순히 분노한 다윗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사건이 지니는 중요성은 다윗이 일시적인 분노로 인하여 그의 소명과 명예에 영원한 손상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고비를 지혜로운 여인의 충고로 벗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신정왕국을 이루는 데 있어 세심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시 139:1~5)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연약한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의탁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 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삼상 25:30)

기도 제목 ① 영적 분별력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게 하소서.
②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히 선포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엔게디 동굴 사건으로 다윗과 화해했던 사울은 또다시 마음이 바뀌어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번에도 선으로 악을 갚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십 사람의 밀고를 받은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여 하길라 산에 진을 쳤습니다.(1~5절) 사울의 군대가 하길라 산에 진을 쳤다는 것을 알게 된 다윗은 밤에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장막에 침입하였고, 다시 한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비새는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겠다고 했지만, 다윗은 아비새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신원하여 주실 것이니 그분께 맡겨야 한다고 말합니다.(6~12절) 무사히 사울의 진영을 빠져 나온 다윗은 사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아브넬을 책망하고 사울에게 다시 한번 화해를 청합니다.(13~25절)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사울로부터 “……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25절)는 축복을 받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을 미워하며 그를 죽이려 한 사울이었지만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총을 베푸셨음을 확실히 깨닫고 승리를 인정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기까지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이 연단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고 대적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난과 연단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삼상 26:25)

기도 제목 ① 고난 중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법을 배울 수 있게 하소서. ② 모든 천국일꾼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1~7절에는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찾는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깊어지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방 민족인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판단합니다. (1절) 다윗이 블레셋을 망명지로 선택한 이유는 블레셋이 당시 사울과 적대관계에 있었고 이스라엘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돌아오기가 쉬웠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수없이 체험했지만 환난의 때에 사람을 더 의지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는 분명한 대안이 있습니다. 신자가가 대답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끊임없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8~12절은 다윗이 블레셋에서 활약하면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점차 신임을 얻으며 그술 및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쳐서 진멸시킨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기스에게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과 겐 지역의 남방을 공격했다고 허위 보고함으로써 아기스의 신임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떨어진 다윗은 결국 위선의 탈을 쓰고 목숨을 구걸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거짓말까지 하면서 사람의 신임을 얻고 자기 욕심을 채워가는 가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와의 구원의 권능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불신의 행위이며 우리가 가진 쓴 뿌리와 같은 옛 사람의 성품, 즉 죄의 본성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대답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은총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육백 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삼상 27:2)

기도 제목 ① 환난의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②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산 제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공예배 시작 15분 전에 참석함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죽었습니다.(3절) 사무엘의 죽음(삼상 25:1)을 재차 반복하여 기록하는 것은 사무엘 사후에 발생한 이스라엘의 영적 혼란과 위기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사무엘이 죽자마자 사울은 하나님의 율법(레 19:31)을 준행하여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내는 종교개혁을 감행합니다. 하지만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두려움에 떠는 나머지 사울은 자신이 몰아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4~7절) 그 이유는 당시에는 사무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선지자나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가증한 행위를 선택하게 되었고, 이후 급속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거짓 영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패전과 아들의 죽음,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다는 말과 더욱이 이스라엘의 왕권이 다윗에게로 이양되리라는 경고를 듣습니다.(15~19절) 이 말을 들은 사울은 깊은 절망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20~21절)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의 결과는 비참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어떤 존재도 인생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범죄로 말미암아 절망과 실패에 빠졌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기보다 주님 앞에 나아와 진실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요일 1:9) 회개가 우리 가슴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의 보혈과 관계를 맺으며 십자가의 은총을 깨닫게 됩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 올리랴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삼상 28:11)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에 속한 일꾼들이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한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1~5절) 다윗은 가지 말아야 할 이방의 땅 블레셋으로 망명했습니다.(삼상 27장) 그리고 이제 블레셋의 왕 아기스에 명령으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과 싸워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출정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었었습니다. 블레셋 편에서 이스라엘과 싸울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아기스 왕의 요청을 뿌리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일에 감동하며 참여하는 다윗의 행동은 오늘날 세상 속에 빛을 발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한 자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시 97:10) 하나님은 블레셋 방백들을 사용하셔서 다윗의 위기를 모면케 하셨던 것입니다.(3~5절)

6~12절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위기에서 무사히 벗어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이 히브리인이요 예전에 자신들을 대적했던 자임을 이유로 들어 전쟁에 참여시킬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3~5절) 결국 아기스 왕은 블레셋 방백들과의 내분을 피하기 위하여 다윗에게 철군을 명령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이 참전할 수 없게 된 사실을 겉으로나마 못내 아쉬워하며 다음 날 새벽 일찍 부하들과 함께 시글락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이 동족과의 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에 내몰리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도록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분이십니다.(롬 8:28)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이까 하니”(삼상 29:5)

기도 제목 ① 하나님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님을 의지하심으로 주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다윗의 거주지 시글락이 아말렉에 의해 약탈당하게 됩니다.(1~6절) 아말렉은 지난 번 다윗이 그들을 침노하여 자기 종족을 진멸하고 약탈한 것에 대해(삼상 27:8~9) 복수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과 그의 군대가 거주지를 비운 사이에 약탈을 감행한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시글락을 불사르고 모든 여인들과 아이들을 노예로 팔기 위하여 사로잡아 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은 피할 수 있었지만 자신이 행한 일(삼상 27:8~12)의 결과로 또 한번 엄청난 시련에 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는 엄청난 시련과 절망 앞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만난 것입니다. “.....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6절)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은 아말렉 족속을 추격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과 물건들을 찾아오게 됩니다.(7~20절) 아말렉을 진멸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됩니다. 다윗은 먼저 제사장 아비야달에게 예삿을 가져오게 합니다. 예삿에 부착된 우림과 둠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말렉을 쫓아가면 반드시 잃은 것들을 되찾게 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간증이 어디에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죽는 것에 대하여 믿음을 실천함으로 그리스도만이 존귀히 되며 나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으며 영원 속에 존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의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삼상 30:19)

기도 제목 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② 봉사위원회에 속한 자원봉사부원들의 모든 섬김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비참한 최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블레셋 족속과의 전쟁을 앞두고 망령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삼상 13:9)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예언된 사울 왕가의 몰락(삼상 13:13~14, 15:23)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블레셋에게 쫓기고 쫓기던 이스라엘은 길보아 산까지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죽임을 당합니다. 한편 사울은 거듭되는 패전과 불리한 상황으로 인하여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블레셋의 군사가 쏜 활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되자 결국 자신의 병기를 든 자의 칼을 취하여 자살함으로 최후를 맞습니다. 이렇게 하여 사울 왕가의 몰락이 성취되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은 죽어서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해 그 시체가 유란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했던 사울 왕가의 몰락은 이방 나라의 본을 따라 인본주의적 동기에 의해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삼상 8:4~22)과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왕 된 자로서 신본주의적 자세를 견지하지 못한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의 결과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가의 몰락은 선민 이스라엘이 새 왕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왕국 체제를 올바로 구축하고 그 역사를 꾸준히 이어가도록 하기 위한 구속사의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 속에 모든 삶이 이루어짐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 날에 함께 죽었더라”(삼상 31:6)

기도 제목 ① 일평생 복음을 위해 헌신하게 하소서. ② 각 교회학교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증거되게 하시고 어린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임 받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말씀은 사울의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 곧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함축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이제 그 약속이 점진적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사울 왕의 악정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고통을 당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십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패배를 당하여 비참하게 쓰러진 것에 대한 슬픔과 의분으로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 및 그의 고달픈 망명 생활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다윗의 이런 반응은 의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금식하며 슬퍼하였고 애가를 불러 진심으로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감정과 원수에 대한 분노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더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처럼 애도한 사랑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과 용서와 관용은 십자가에서 보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증거하며 부르심에 순종하는 영원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삼하 1:14)

기도 제목 ①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게 하소서. ② 모든 성도들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보혈의 은혜로 채움 받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다윗의 왕권이 확립되어 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전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여전히 위기에 처해 있었고 다윗은 아직 남쪽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용사들이 다윗에게로 나아왔으며 그의 세력은 크게 확장되었습니다.(대상 12:22) 그러나 다윗은 결코 선불리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했습니다.(1절)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무엘하에 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록이 세 번 더 나옵니다.(5:19, 23:2~13) 겿 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합니다.(마 26:39)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갑니다.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1절, 창 35:1) 헤브론은 다윗과 친분이 두터웠으며 군사적으로도 안전한 성읍으로 유다지파의 정치적 중심점이 되는 곳입니다. 헤브론은 일찍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창 13:18) 신성한 곳이며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었던 영적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덧입는 은총입니다. 오늘도 순종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삼하 2:1)

기도 제목 ① 온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②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보혈로 거듭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1절)는 말씀이 보여 주듯이 하나님은 다윗을 강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친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합니다. 아브넬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17~18절) 그렇지만 그는 모든 일이 자기 의지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하였습니다. 이스브셋과의 불화(6~11절), 다윗과의 협상(12~21절)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그의 말과 행동은 그의 교만을 단적으로 보여 줍니다. 아브넬의 처신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이를 꺾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욕심과 목적달성을 위해 교만하게 행동한 아브넬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27, 31절)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에 바탕을 둔 신중한 말과 행동은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사울의 죽음과 정국의 혼란은 결국 다윗 언약을 성취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십자가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교회를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근본이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두며 복음 증거하라는 부르심에 동참하여 순교의 길을 걸으며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 갈 수 있는 은총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삼하 3:1)

기도 제목 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②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해서 교회주변의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아브넬의 죽음에 이어 이스보셋이 자기 신하들에게 살해됨으로써 사울의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도력을 행사하던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 살해됨으로써 점점 약화되어 가던 사울 왕가는 급격히 쇠퇴하고 급기야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몰락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다윗의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가문에 대하여 끝까지 신뢰를 지키는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3장에서 4장으로 이어지는 사건들 속에 나타난 다윗과 이스보셋의 대조적인 모습은 결국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브넬의 죽음과 이것으로 말미암는 급격한 혼란에 직면한 이스보셋은 크게 낙담하였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의 맥이 풀렸고”(1절)라는 말씀은 그가 아브넬을 얼마나 의지하였으며 아브넬의 죽음이 그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사람과 환경과 세상적인 조건을 의지하는 사람은 혼연히 멸망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이 요동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과 사람을 의지한 이스보셋의 현저한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을 의지하기 쉽지만 그럴 때일수록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여 더욱 의지해야 진정한 평화와 승리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함으로 문제를 넘어선 이 평화가 우리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의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삼하 4:1)

기도 제목 ①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소서. ② 오직 십자가 복음만 전하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국내 전도와 세계 선교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다윗이 사울 일가와와 오랜 내전을 승리로 장식하고 마침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의 죽음을 끝으로 사울 일가의 종말을 보게 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고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였습니다.(1~5절) 다윗은 왕으로 추대된 후 이스라엘을 괴롭혀 온 여부스 족속을 격멸시키고 그들의 성읍인 예루살렘에 성을 세우고 다윗 성이라 명하고 그 곳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로 삼았습니다.(6~16절) 한편 다윗의 즉위 소식을 들은 블레셋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만 오히려 다윗에 의해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17~25절)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실히 보여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어 이르되”(19절) 다윗은 무슨 일에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후에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함께 해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갔습니다.(10절) 우리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이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 매어달리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기 위하여 간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렘 33:3)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해 달라는 간구와 간절함으로 보혈을 덧입는 은총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삼하 5:12)

기도 제목 ①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보혈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바알레유다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다윗은 3만 명의 군사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오다가 소들이 뛰므로 옷사가 궤를 붙들었더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옷사가 즉사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서 오벨에돔의 집에 3개월 간 법궤를 모시게 됩니다. 그 결과 그 집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11절)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다시 법궤를 모셔오기로 작정하여 이번에는 소를 쓰지 않고 채로 메어오도록 하였습니다. 첫 번째 실패의 원인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데 있음을 알게 되자, 말씀대로 행하여서 무사히 법궤를 가져오는 데 성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법궤를 모셔 오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자기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기준을 더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미갈은 형식적으로 종교에 순종했으나 내적인 교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을 엿신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6, 20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우리의 아름다운 행위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던 미갈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인지라도”(22절)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겸손함과 예수님을 만난 기쁨의 간증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벨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삼하 6:12)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함에 감사드리며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②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준비하도록 은혜를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통일 왕국을 안정된 기반 위에 올려 놓은 다윗은 선지자 나단에게 성전 건축에 관해서 의논을 합니다. 나단도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라고 했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중지하도록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5절)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장막과 회막에 거하였지만 언제 너희가 여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않느냐고 한 일이 있었느냐? 나는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줄 것이며 때가 되면 네 몸에서 난 자식을 통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5~13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대상 22:8, 28:3)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소원을 좋게 보셨고, 그 소원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 그의 믿음을 보시고 다윗과 그의 집에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우선권을 두고 충성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셔서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위하여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16절)고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구속의 은총 때문에 영원으로 이어지는 헌신과 천국의 비밀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비밀의 은총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삼하 7:24)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예배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접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다윗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전국을 다스리며 백성에게 공의와 정도를 걷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방의 적을 정복하여 나갈 때에 계속하여 승리를 거둡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그 군대의 강성함과 그의 지략에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6절) 그의 승리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 아래 다윗 나라가 확장됨을 말씀합니다. 다윗의 전쟁은 여호와와의 거룩한 전쟁이었으며 다윗의 통치는 메시아로 말미암아 장차 이룩될 그의 나라와 의로운 통치를 예표해 줍니다.

그는 곤경에 빠지고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으면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으며, 기도를 통해 여호와께 힘을 얻었으며,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통치가 이스라엘 전국에 미치고 있으며 정의를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다윗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믿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교만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승리를 얻은 것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항복할 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승리는 예수님께 절대적인 항복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졌기에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하는 믿음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삼하 8:6)

기도 제목 ①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오니 인도하여 주소서, ② 교역자들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담대히 진리를 증거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피로 제사를 드리심으로 단번에 영원하고도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온전히 구속되었고 속죄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11~12절)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로 죽은 행실에서 떠나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습니다.(14절)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의지하고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용납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그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 놓으신 생명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24절)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영원한 기업 하나님 나라를 얻도록 하셨습니다.(15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하신 일입니다.

처음 언약에 속한 모든 예법과 성소에서 섬기는 일들은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온전한 제물로 성소에 들어가신 후 첫 언약은 폐지되었습니다. 피를 흘리는 것은 언약의 비준이며 동시에 언약을 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언약의 견고성을 가리킵니다.(22절)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언약을 완성하셨으며 구속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었습니다.(딤후 2:14) 할렐루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히 9:22)

기도 제목 ① 피 흘리신 구속의 은혜를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② 단기선교에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완전한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습니다.(10절) 과거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제사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성과 신성을 지닌 분으로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습니다.(19절)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죄를 자복하여 긍휼하심을 힘입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22절)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잘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하늘에 두고 모욕과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비웃음거리가 되어도, 심지어는 재산을 빼앗기며 목숨까지 위협받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인내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입니다.(36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37절)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위해 모욕과 핍박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 받음을 기뻐하는 삶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히 10:14)

기도 제목 ① 주의 나라와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더욱 힘쓰게 하소서. ② 위임 목사님께서 영육의 강건함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성령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이며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들에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깨닫게 해 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신뢰하는 일입니다.(17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위하여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비록 하나님께 순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의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그분을 붙들고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나그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13~16절)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의 생애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믿음의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택하신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봅니다. 이에 우리는 믿고 순종할 뿐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갈 때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나 방법과 이유와 목적과 결과를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이 신앙과 함께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가 필요합니다. 1절부터 이어지는 믿음의 모습, 믿음의 고백, 믿음의 인내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극한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의 성취를 받은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히 11:1)

기도 제목 ①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②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거듭나서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성경은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하여 설명합니다.(고전 9:24) 경기하는 사람은 항상 목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목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2절)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적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라고 하는 목표가 분명할 때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날마다 깊은 말씀 묵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고난을 기쁘게 참고 인내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요일 5:4) 진정한 신앙의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사랑하는 자들을 채찍질 하십니다. 이런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은총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총의 길을 열어 놓으신 부르심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기 원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오히려 성숙한 믿음과 성결한 삶을 위한 격려와 축복입니다.(8절) 그러므로 징계를 통하여 나를 유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을 돌아보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히 12:1)

기도 제목 ① 십자가를 바라보며 달음질하는 믿음을 주소서. ② 남녀전도회 회원들에게 성령충만함을 주시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성도의 생활지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1절)는 권면과 정결의 유지(4절), 자족(5절),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움(16절), 영적 지도자의 믿음을 본받음(7절), 순종과 복종(1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8절)는 뒤 이어 나오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9절)는 말씀과 대비되어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부인하고 옛 언약을 고집하는 율법주의적 유대주의의 가르침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다움을 확신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12절)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예루살렘성 밖에서 이루어졌음(요 19:17)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던 그리스도와 함께 기꺼이 율법의 상징인 유대교 밖에 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총을 찬미하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는 또한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15절)입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가운데서 예수님을 이끌어 내신(20절) 하나님의 비밀을 아십니까? 23절에는 디모데가 박해 가운데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환난과 박해 가운데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21절)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박해 가운데 예수님을 위한 사랑의 연합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히 13:16)

기도 제목 ① 거룩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② 선교 파송을 준비하는 팀들이 영적 준비를 철저하게 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문안 인사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결합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격의 위치에 놓은 것은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던 이단에 대해서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며 믿음의 시련(2~3절)에 대하여 말씀하며 야고보서를 열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스테반의 순교 이후 박해를 피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욱 감사하며 기뻐할 것을 말씀합니다. 당시 초대 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는 시련의 목적과 의미, 그리고 그 결과를 말씀하며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하며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입니다.(17절)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약 1:18, 요 1:13) 이 귀한 선물을 우리는 거저 받았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핍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의를 위한 핍박이 없이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로 가신 그 길을 걸으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약 1:18)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되게 하소서. ②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 이 믿음은 위로부터 받아서 믿는 믿음입니다.(1절) 본문을 기록한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 집에 살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할 때 그 무리 중에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고전 15:7) 난 후에야 야고보는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은 야고보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는 믿음이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려 순종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며(21~23절),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은 믿음입니다.(25절) 믿음은 행위의 순종을 요구하고, 또한 그 믿음은 행위의 순종의 결과로 낳은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십자가가 점점 커집니다. 우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영원을 앞에 놓고 우리의 삶과 죽음을 앞에 놓고 말씀을 기다리며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절대적인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약 2:1)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과 교역자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복 중의 하나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언어도 함께 타락하여 말이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말은 거듭나야 합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이사야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뵈게 되었다고 두려워 떨니다. 그때 천사가 화제로 단에서 숯불을 취하여 이사야에게 날아와 이사야의 입에 대며 말하기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고 말합니다.(사 6:5~7)

그럼에도 우리는 모이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보다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야기를 즐겨합니다. 이는 아직도 자기가 살아 있는 교만함 때문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마땅치 않은 점(10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는 복음이며 복음보다 더 아름다운 말은 없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우리의 입술을 복음 전하는 입술, 회개하는 입술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총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약 3:9)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② 현재 추진중인 양로원, 남골시설 건립과 공사중인 수양관, 본당 외벽 석재 보수가 은혜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8절)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바로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엡 2:16)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가까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며(7절) 주 앞에서 낮추어야 하며(10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며(11절), 이웃을 판단하지 말라(12절),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17절)는 말씀은 구원 받은 우리에게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된 자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참 기쁨은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즐거움이며,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 받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갈 6:14)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해 주신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약 4:8)

기도 제목 ①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2008년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 훈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며, 선교에 방관자가 없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에는 “저희가 주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라는 말씀이 수없이 반복됩니다.(시 30편, 107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4절)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의 소리, 억울한 울음소리, 눌린 자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어 주시는 것에 대해 간증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민 20:16)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며 언약에 따라 은혜를 베푸시고, 그 언약을 충실히 지키십니다. 언약은 ‘자르다’ 또는 ‘먹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언약을 세울 때 희생동물을 잘라 두 줄로 두고 그 사이를 언약자가 지나가는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언약은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은 새 언약에서 완성됩니다. 이 새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때 “너희를 위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권념하셨습니다. 권념이란 ‘알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이미 깊이 알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신음을 아시고 고통하는 백성들을 품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옴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약 5:11)

기도 제목 ① 고난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의 모든 교사들이 성령으로 깨어 맡겨진 양무리들을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구역예배교재

1월 구역 교재 초점

온 땅에 충만한
십자가의 은총

온 땅에 충만한 십자가의 은총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일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기초이며 대답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은 매순간 우리를 미혹하여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 복음 안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죄인을 복음의 도구로 삼으신 십자가의 은총이 온 땅에 충만할 그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천국을 향한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악한 무리들을 대적하십시오. 승리는 전고한 믿음을 가진 우리의 것입니다!

금요모임	본 문	제 목	초 점
0104	마 26:26~29	주의 만찬	예수님을 통해서 열린 천국을 소망하자
0111	고전 15:1~11	복음 안에 서라	복음 안에 서서 십자가를 전하자
0118	말 3:6	변치않으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자
0125	사 6:1~8	이사야의 고백	죄인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회개하며 순종하자

1. 구역 예배 순서

찬 송		다같이
기 도		담당자
구역교재		인도자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2. 구역 교재 전개

도 입	전 개	적 용
마음으로 路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 봅니다.	말씀으로 路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심자가로 路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심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0분	소요시간 25분	소요시간 15분

1과 주의 만찬

| 초점 |

예수님을 통해서 열린 천국을 소망하자

| 찬송 |

찬송가 232장 유월절 때가 이르러

찬송가 198장 주 예수 해변서

| 본문 | 마태복음 26:26~29

☞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008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08년에도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심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창 15:1)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 2008년 믿음의 계획들을 나누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이 식사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주의 만찬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 '주의 만찬' 이 제정된 배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마 26:26~28

유월절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마지막 저녁식사 즉, 주의 만찬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만찬을 통하여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셨습니다. 주의 만찬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라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떡이 예수님 자신의 몸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26:26 /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이니라 하시고

눅 22:19 / 또 □을 가져 감사 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하라 하시고

떡은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상징물입니다. 주의 만찬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대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유한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한된 육체를 선택하셨습니다.

빌 2:5~7

예수님의 몸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과 고통, 인내를 기억해야 합니다.

※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라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신 후에 잔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이 예수님 자신의 피를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26:27~28 / 또 ☐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 ☐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 곧 ☐의 피니라

떡과 마찬가지로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상징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 값을 치르기 위해 흘려진 것입니다.

롬 5:9

벧전 1:18~19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명예, 또는 선행으로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1:9과 요한계시록 1:5 말씀이 각각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천국을 기억하라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곧 임하실 그리스도의 새 왕국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 왕국은 곧 천국입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마 26:29 /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 아버지의 에서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천국에서 이 영광스러운 성만찬에 참여하게 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천국에서의 만찬은 이 세상에서의 만찬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계 7:17

계 21:4

※ 천국에서 열린 만찬에 내가 참여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만찬에서 예수님께 하고 싶은 말을 써 보신 뒤 나누어 보십시오.

천국에서 우리의 영혼은 기뻐 뛰놀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성만찬을 나누게 될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날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히 3:1

예수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로 세우신 새 언약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만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만찬은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주의 만찬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과 다가올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고전 11:24~25

※ 다음의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죄 사함의 은총을 믿으십니까?
-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십니까?
-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게 될 것을 기대하십니까?

주의 만찬은 하나의 예식이 아닙니다.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2008년 첫 성찬식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 간절한 기도 |

1.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이 되게 하소서
2. 성찬식을 통하여 천국을 소망하는 은총을 내려 주소서
3. 구역원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2과 복음 안에 서라

| 초 점 |

복음 안에 서서 십자가를 전하자

| 찬 송 |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 본 문 | 고린도전서 15:1~11

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②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③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④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고전 15:3~4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세상에 물든 복음이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 엄중하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갈 1:8~9

※ 복음을 정의해 보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기쁨을 나누어 보십시오.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소망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기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 안에 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복음을 전하라

복음 안에 선다는 것은 곧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서 있는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고전 15:1~2 /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을 받으리라

우리는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과 입술을 통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설교 단상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증인된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빌 1:27

복음은 기쁜 소식일뿐만 아니라 전파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소식입니다. 복음의 일꾼이 됩시다.

죄인을 일깨우라

복음 안에 선다는 것은 곧 죄인들을 일깨우는 것을 뜻합니다. 복음은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힙니다. 복음은 어둠의 죄인을 일깨워 천국을 향해 가는 은총의 죄인이 되게 합니다.

※ 요한계시록 20:13~15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나누어 보십시오.

복음을 믿지 않는 죄인은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 사실을 잊게 합니다. 우리에게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교묘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유혹에 속지 마시고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벧후 3:9 /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아무도 하지 아니하고 다 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 요한복음 3:16 말씀을 암송하신 뒤 함께 고백해 보십시오.

죄인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으십시오.

성도를 온전케 하라

복음 안에 선다는 것은 곧 성도들이 온전하게 서도록 돕는 것을 뜻합니다. 복음만이 성도를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권고해야 합니다.

엡 2:19~20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길 원합니다.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서로 협력하며 세워지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각각의 은사와 직분을 주셨습니다.

※ 성도의 온전함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 인도하라

복음 안에 선다는 것은 그물을 끌어올리는 것 즉,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길, 진리, 생명이십니다.

막 1:17

※ 어떻게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합니까?(설교문 참조)

그물을 당기는 일, 곧 전도는 주님의 교회를 영적으로 부흥시키며 신자들을 하나로 연합시킵니다. 그럴 때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되며 복음 안에 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 마태복음 28:18~20 말씀을 묵상한 뒤 의미를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는 복음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온전한 성도로 세워집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은총의 삶을 삽니다. 이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십자가의 은총이 있습니다.

고전 15:9~11

롬 1:17 /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_____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_____ 함과 같으니라

바울을 복음의 일꾼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일꾼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주님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갑시다.

| 간절한 기도 |

1. 복음 안에 굳게 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교구와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3과 변치않으시는 하나님

| 초 점 |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자

| 찬 송 |

찬송가 481장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 본 문 | 말라기 3:6

나 여호와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급변하는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변화는 어디에서나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날씨나 국가의 이름, 사회적 구조도 변하고, 패션도 바뀝니다. 삶의 스타일, 기술, 국가 경계선도 바뀝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육체뿐만 아니라 감정까지도 항상 변합니다. 때로 우리의 목표나 확신마저도 변합니다.

※ 변하는 것들과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말 36 / 나 여호와와는 ☐☐☐ 아니하니

변함없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말 36 /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이 너희가 ☐☐ 되지 아니하느니라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심판의 날에 불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결코 변하지 않습니까?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변치않는 죄의 삶

하나님 앞에서 치러야 할 죄의 삶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뒤따릅니다. 그 어떤 변명이나 거짓말도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롬 6:23

※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속임수를 비교해 보십시오(창 2:16~17, 3:4)

에덴동산에서의 범죄는 모든 인류에게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 죄로 인해서 아담의 자손들인 우리는 죄의 삶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죄의 삶은 죽음입니다.

롬 5:12 / 그러므로 으로 말미암아 가 세상에 들어오고 로 말미암아 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를 지었으므로 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히 9:27 / 한번 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이 있으리니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또 어느 나라를 방문하든지 항상 묘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참 신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절대로 영원한 죽음과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삶을 반드시 치루어야 합니다.

변치않는 추수의 법칙

추수의 법칙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갈 6:7~8 /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로부터 □□□□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로부터 □□□□을 거두리라

추수의 법칙은 불변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심고 축복을 거두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씨를 뿌립니다. 우리의 수확은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기쁨이 넘칠 때도 있습니다.

※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삶의 기쁨과 실망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흔적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욕심의 흔적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보혈의 흔적은 매우 분명해 집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심는 일에 전심(全心)해야 합니다.

갈 6:14

갈 5:16,24

임박한 추수를 생각하며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변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십시오.

변치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죄의 삶과 추수의 법칙 앞에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있습니다.

롬 5:8

※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견줄만한 사랑은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極致)입니다.

막 1:11

요일 4:10 / 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로 그
을 보내셨음이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본 사랑 가운데 가장 놀랍고 위대합니다.

※ 요한복음 15:13과 에베소서 2:8~9 말씀의 의미를 나누어 보십시오.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입니다. 죄의 값을 치루어야 할 죄인인 우리에게는 영원한 형벌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골 1:13 / 가 우리를 의 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의 로 옮기셨으니

고후 13:4

히 13:8

지금 우리에게 은총의 기회가 있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십시오. 사랑의 실체인 십자가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 간절한 기도 |

1. 변함없는 추수의 법칙에 따라 죄의 값을 치루어야 함을 잊지 않게 하소서
2.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변함없으신 하나님 사랑의 실체인 십자가를 전하게 하소서

4과 이사야의 고백

| 초점 |

죄인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회개하며 순종하자

| 찬송 |

찬송가 8장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찬송가 329장 주 날 불러 이르소서

| 본문 | 이사야 6:1~8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8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우리에게는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사에 적극적으로 온갖 심혈을 기울이지만 정작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내적 평화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 사람들이 참 행복과 내적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롬 8:6

이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나름대로 성실히 맡겨진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웃시아 왕이 죽던 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뵈신 후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감당했던 자신의 모습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 이사야 6:1~3 말씀의 상황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시 111:9 /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하시며 그의 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하고 지존하시도다

이사야는 의로운 선지자였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뵈신 후 자신의 잘못된 사역을 바로잡게 되었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라도

이사야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알아야 했습니다. 그는 전통과 율법으로 포장된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습니다.

사 6:3

※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 할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 설명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환상 중에 이사야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환상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보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심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 99:3 /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_____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고, 특별히 십자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이 깨끗하게 씻겨짐으로써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엡 2:14~16,19

이사야는 환상을 보기 전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고 오로지 다른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만 생각했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엇도다

이사야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알아야 했습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보았을 때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 6:5

하나님을 처음으로 뵈게 되었을 때 그의 입술에서 나온 첫 마디는 자신의 비참함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속사람이 얼마나 더러운지 보았던 것입니다.

렘 17:9 / □□보다 거짓되고 심히 □□한 것은 □□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사 6:6~7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속이 어떠한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알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상태를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 요한일서 1:9 말씀을 쓴 뒤에 함께 읽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완악함을 회개하며 묵상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숨기거나 변명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매순간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뵈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깨달은 후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보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 6:8 /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대에 내가 이르되 _____
_____ 하였더니

하나님은 불쌍하게 죽어가는 영혼들로 가득 찬 세상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면서까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 요한복음 3:16과 누가복음 19:10 말씀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나누어 보십시오.

이사야는 이제 절망이 아닌 희망의 눈으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진정한 기쁨과 비전이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비전이 있습니까? 우리도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수 14:12 / 그 날에 _____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_____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롬 10:20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보았을 때 동시에 죄로 가득한 자신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달았을 때 그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자 기꺼이 그는 자신의 사명을 위해 순종하였습니다.

막 16:15 /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에게 □□을 □□하라

딤후 4:17 /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

요 3:36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정결한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시다.

| 간절한 기도 |

1.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소서
2.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십자가의 은총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하소서

남성구역예배를 위한 설교

‘남성구역예배’는
‘구역예배교재’ 중
‘제3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변치않으시는 하나님

나 여호와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말라기 3:6)

우리는 급변하는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변화는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날씨나 국가의 이름, 사회적 구조도 변하고, 패션도 바뀝니다. 온도, 삶의 스타일, 기술, 국가 경제선도 바뀝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육체뿐만 아니라 감정도 항상 변합니다. 때로 우리의 목표나 확신마저도 변합니다. 이처럼 시간은 많은 것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단 하나님은 예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나 여호와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6절) 우리에게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언약은 신실하십니다. 이로 인해 그의 자녀된 우리들이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6절)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심판의 날에 불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결코 변하지 않습니까?

변치않는 죄의 삶

하나님 앞에서 치러야 할 죄의 삶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뒤따릅니다. 어떤 변명이나 거짓말도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로마서 6:23은 말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삶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동산에서 이미 이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창 2:16~17) 사탄은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창 3:4) 그것은 정말 그럴듯하게 보이는 엄청난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변하실 것이라고 거짓 말하거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죄는 영적인 죽음, 궁극적으로 육체의 죽음을 초래했고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5:12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다시 말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이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9:27은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또 어느 나라를 방문하든지 항상 묘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참신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절대로 영원한 죽음과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변치않는 추수의 법칙

추수의 법칙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나쁜 씨를 뿌렸다면 나쁜 열매를 거둘 것이고, 좋은 씨를 뿌렸다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심었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7~8은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법칙은 불변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심고 축복을 거두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씨를 뿌립니다. 우리의 수확은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기쁨이 넘칠 때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 심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육체를 따라 심는 일에 허비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임박한 추수를 생각하며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십시오.

변치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8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받아본 사랑 가운데 가장 놀랍고 위대합니다. 여러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고 있었을

때도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별들이 빛을 발하기 전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오랜 세월동안 한 번도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분의 사랑을 확증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13은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엡 2:8~9)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죄의 삶과 추수의 법칙,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불변의 진리들은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치않으시는 하나님에 의해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은 변치 않는 구세주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나오십니까?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낭독	
기 도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2008년 1월호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현

집필진 | 양재웅 유재진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
